

## 장편소설 『피바다』에 대하여

고철훈\*

### 【국문초록】

장편소설 『피바다』는 위대한 ○○님께서 창작한 동명 연극을 소설로 옮긴 것으로 원작인 혁명연극 『피바다』는 간도 땅을 침략한 일본에 맞서는 조선 사람들의 항쟁, 특히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항쟁의 길에 나서는 조선여성의 모습에 위대한 ○○님께서 감동을 느껴 창작하게 되었다.

장편소설 『피바다』는 원작의 심오한 사상과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살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작품의 주제사상은 주인공인 어머니의 성격성장 과정과, 세계관 형성을 통하여 깊이 있게 해명되고 있다. 소설은 어머니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피압박 대중에게 있어서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투쟁의 진리와 함께 항일 무장투쟁의 정당성과 반제 혁명사상을 깊이 있게 밝혀내고 있다. 장편소설 『피바다』가 소설로서 읽을 맛이 있고,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은 묘사문학으로서의 자기 특성을 살리고 있기 때문인데, 소설의 묘사적 가능성을 충분히 살려 장면 장면을 다른 예술적 형식들 못지않게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소설의 특성을 살려 원작에는 없는 뒷배경을 파고들어서 독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읽을 맛을 배가시키고 있다. 장편소설 『피바다』가 원작을 옮긴 영화나 가극 못지않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는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감정 그리고 작가의 주정토로가 생활과 밀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품은 주인공의 심리묘사에서 감정의 실마리와 색깔을 정확하게 잡고 수시로 엮바꾸어지고 영키는 다양한 색채의 감정들을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려나감으로써 주인공을 산 인간형상으로 잘 부각시키고 있다.

---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소장

장편소설 『피바다』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소설의 형태적 특성을 살려 높은 사상 예술적 경지를 개척함으로써 주체소설문학의 고전적 본보기로 선군시대를 선도하는 선군혁명문학의 왕성한 창작과 그 성과를 담보하는 고무적 기치로 되고 있다.

**주제어** 장편소설 『피바다』, 혁명연극 『피바다』, 성격형상, 묘사문학, 뒷배경, 주성토로

장편소설 『피바다』는 위대한 ○○님께서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 명작을 소설로 옮긴 것이다. 1936년 8월 무송현 만강부락에서 광술불과 남포등을 켜놓고 연극으로 첫 막을 올린 이 작품을 그날부터 30여년이 지난 1970년대 초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영화와 가극, 소설로 옮겨지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를 친히 보아주시고 '4.15문학창작단에서는 ○○님의 의도를 옹기 파악하고 원작의 심오한 사상과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살리면서 장편소설의 특성에 맞게 훌륭히 옮겨놓았습니다.'라고 높이 치하하셨다.

우리나라에서는 장편소설 『피바다』를 주체소설문학의 참다운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다.

남조선에서도 장편소설 『피바다』는 1980년대 말에 『민중의 바다』라는 제명으로 출판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소설가 윤정모는 잡지 『창작과 비평』(1989년 봄)의 서적 소개란에 '고리끼의 『어머니』를 압도하는 감동을 느끼며 『민중의 바다』를 읽던 나는 이따금 책을 덮고 울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던 것이다.'라고 독후감을 실었다. 많은 문예학자들과 평론가들이 각이한 형식의 글을 통하여 장편소설 『피바다』를 평하였는데 총괄적인 느낌은 민족의 동질성에 대

한 재확인이며 긍지였다.

‘적어도 사상과 제도,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이 책에 담긴 대단한 민족적 긍지에 대한 경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평론 「통일운동과 문학」, 『창작과 비평』, 1989년 봄)라는 평론가 백락청의 글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평론 「통일운동과 문학」에서 장편소설 『피바다』를 읽고 느낀 소감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피바다〉제 1편에서 일본군의 느닷없는 토벌로 남편을 잃고 마을이 온통 삭밭이 되는 충격이라든가 돈 없고 나라 잃은 당시의 조선 여성들이 고통으로 겪은 뼈아픈 설움이 밀거름이 되어 어머니가 자식들과 함께 싸워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되고 드디어 이웃의 아낙들까지 일깨워 부녀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는 2 || 3편의 진행을 큰 실감과 감동을 준다.’

이러한 느낌은 비단 그만이 아니었으며 장편소설을 대하는 거의 모든 남조선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장편소설이 사상과 리념을 달리하는 그들에게까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수난 당한 민족의 운명문제를 순박한 조선 여성의 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장편소설의 원작인 혁명연극 『피바다』를 창작하게 된 기본연원은 ‘간도 토벌가’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대한 ○○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문자 그대로 피바다가 된 간도 땅의 참상을 볼 때마다 ‘간도 토벌가’를 상기하였고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초와 수난을 두고 울분을 금지 못하였다고 하시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간도에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조선 사람들이 그런 참혹한 운명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항쟁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 거족적인 항쟁에는 삼강오륜과 삼종지도에 구속당하던 녀인들과 그 녀인들의 치마폭에 싸여 밥투정질을 하던 아이들까지도 다 참가하였다.

위대한 ○○님께서서는 바로 그들의 모습에서 크나큰 감동을 느끼셨으며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혁명의 길에 나서는 조선여성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을 구상하게 되셨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장편소설의 원작인 혁명연극 『피바다』의 창작경위이다.

장편소설 『피바다』는 원작의 심오한 사상과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살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원작이 그러하듯이 장편소설 『피바다』에는 수난의 『피바다』를 투쟁의 『피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심오한 종자가 심어져있다. 작품의 종자 속에는 일제 강점하의 우리나라의 비극적 현실이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과 비극적 운명이 담겨져 있다. 장편소설의 제1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배나무골에 대한 대살륙의 참사가 빛어지는 토벌장면에 대한 묘사는 바로 이러한 종자로부터 싹튼 형상적 화폭인 것이다.

장편소설에서는 심어진 종자로부터 혁명이란 무엇이며 왜 혁명을 해야 하는가, 혁명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주제로 설정되며 작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는 법이라는 위대한 반제 혁명사상과 무장폭동의 진리가 심오하게 밝혀지고 있다.

작품의 주제사상은 주인공인 어머니의 성격성장과정, 세계관 형성과정을 통하여 깊이 있게 해명되고 있다.

남편 없이는 한시도 못산다던 어질기 그지없는 주인공 순녀가 원수 일제와 그 식민지 통치제도의 반동적 본질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고 혁명투쟁에 나서기까지는 가지가지의 피맺힌 생활체험이 쌓였다. 원한에 찬 피바다 속에서 것처럼 믿던 남편 윤섭을 잃고 의지 없이 시련의 가시덤불을 헤치며 세 자식을 거느리고 살아가야 할 순녀의 기막힌 처지는 순박한 그에게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가지게 하였으며 혁명투쟁에 나설 각오를 굳게 다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작원 조동춘의 적극적인 영향

밑에 혁명의 진리를 깨달은 순녀는 귀여운 막내자식인 을남이를 원수들에게 잃으면서 까지도 혁명조직을 구원하며 총을 들고 폭동에 참가하는 높은 혁명적 세계관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다. 소설은 어머니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피압박대중에게 있어서 혁명만이 살길이라는 투쟁의 진리와 함께 항일무장 투쟁로서의 정당성과 반제혁명사상을 깊이 있게 밝혀내고 있다.

장편소설 『피바다』는 원작의 심오한 사상과 심각한 문제를 그대로 살리면서 소설의 형태적 특성에 맞게 훌륭히 옮긴 기념비적 대작이다.

소설의 형태적 특성을 살리는데서 기본은 묘사를 잘 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원작을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의 초고를 몸소 보아주시고 소설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감동적으로 묘사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장편소설 『피바다』가 소설로서 읽을 맛이 있고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은 묘사문학으로서의 자기 특성을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편소설에서 묘사는 토벌을 당한 다음 별재마을로 찾아갈 때 냇가에서 원남이가 갑순이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나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올 때 발구를 타고 오는 장면, 갑순이가 죽은 을남이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 같은 데서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만 놓고 보아도 영화나 가극에서는 ‘일편 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와 같은 노래가 심금을 울려주니 감동이 크지만 소설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쓸 수 없다. 그 대신 장편소설에서는 자기의 묘사적 가능성을 충분히 살려 이 장면을 다른 예술적 형식들 못지않게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들국화 만발하고 노을이 붉게 편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묘사 그리고 어머니와 갑순이 을남이의 내면심리를 보여주는 묘사는 깊은 정서와 감동이 넘치게 한다.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소중하게 생각되고 어머니에게는 새삼스

럽게 아이들이 애뜻하게 느껴지는 감정세계, 눈길만 마주치면 울어버릴 것만 같은 감정세계를 흐트러진 어머니의 귀밑머리에서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칼을 찾고 눈물이 그렇게지는 갑순이와 언덕에 핀 들국화를 정신없이 꺾어 어머니 앞에 안기는 울남이의 행동 그리고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내면심리에 대한 분석적인 묘사를 통하여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다.

불후의 고전명작을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소설의 특성을 살려 뒷생활을 파고들으로써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독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읽을 맛이 있게 하고 있다.

원작을 다른 문학예술형태로 옮기는 경우 뒤 생활을 판다는 것은 원작의 심오한 종자를 형상적으로 꽃 피우기 위해 원작에 그려지지 않은 생활을 매개 문학예술형태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탐구하여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 순녀와 그의 남편 윤섭이의 과거를 뒷생활로 파고들으로써 그들이 어떤 처지, 어떤 계급적인 토대에서 자란 인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조차 모르고 철이 들기 전부터 황희도네 집 부엌데기로 일해야 했던 순녀의 기막힌 생활처지, 비록 아씨가 입다 버린 께여진 저고리이며 단이 너털너털했던 토스레치마를 걸쳤지만 부엌데기라고는 믿기 어려울만치 복상스럽고 이쁜 순녀의 용모, 그가 황희도네 집에 머슴살이를 들어온 윤섭이를 무서워하면서도 마음 끌리게 된 처녀시절이야기며 황희도 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섭이와 순녀가 동네어른들 앞에서 랭수 한 사발을 떠놓고 성례를 올린 이야기 그리고 이듬해 겨울에 첫 애기 원남이를 낳고 황희도네 천대에 더는 참을 수 없어 하루 밤 불쑥 붓짐을 해지고 천암령을 넘어 배나무골에 이른 이야기가 생활적으로 구수하게 전개되고 있다. 장편소설에서는 이러한 생활을 파고들으로써 주인공 순녀의 성격전모를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장편소설에서는 이밖에도 말끝마다 《도대체》 소리를 입버릇처럼 읊기는 《덤배북청》으로 이미 영화와 가극을 통하여 독자관중들에게 알려진 개성적 성격의 소유자인 명찬이의 뒤생활을 통하여 왜놈 《토벌》대가 닥쳐왔다는 것을 마을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총창에 찢리면서까지 종을 치는 그의 희생적인 행동의 밑바탕에 어떠한 생활감정이 흐르고 있었는가에 대해 깊이 있는 해명을 주고 있다.

장편소설 『피바다』 원작을 읊긴 영화나 가극 못지않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감정 그리고 작가의 주정토로가 생활과 밀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불후의 고전 명작 『피바다』를 소설로 읊기는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에 없거나 생활과 밀착되지 않는 심리, 감정 주정은 아무리 잘 그렸다 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가르치셨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장편소설 『피바다』에는 주인공 어머니의 심리와 감정을 비롯하여 작가의 주정토로와 주어진 이야기들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묘사될 수 있었다.

남편 윤섭이를 원수들에게 잃은 어머니의 복잡하게 엉켜진 내면심리만하여도 생활과 밀착시켜 여러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해부하고 있다. 남편을 잃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순녀의 설움과 그런 슬픔 속에서 복잡하게 갈마드는 지나간 생활에 대한 가지가지 추억,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할 앞날에 대한 불안과 위구, 그런 속에서도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돌려지는 애뜻한 정,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리라는 굳센 마음 등을 서로 엮바꾸어가면서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소설에서 여러 각도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진 주인공 순녀의 심리가 진실하게 감동적으로 안겨오는 것은 그것이 그의 성격과 생활체험에서부터 스스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럴 수만 있다면 남편과 나란히 무심히 땅속에 묻혀주고 싶은 충동, 생전에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본 일까지 가슴에 맺혀 후회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볼 수도 없게 남편의 시신을 제 손으로 물어버린 것이 한으로 되는 것과 같은 주인공의 생각은 남편 없이는 한시도 못산다던 순박한 그의 성격과 흘러간 생활체험으로부터 스스로 우러나온 진실한 감정인 것이다.

특히 작품은 주인공의 심리묘사에서 감정의 실마리와 색깔을 정확하게 잡고 수시로 엇바꾸어지고 영키는 다양한 색채의 감정들을 놓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려나감으로써 주인공을 산 인간형상으로 잘 부각시키고 있다.

소설에서는 작가의 주정토로도 생활과 밀착시켜 장면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 밑에 창작 완성된 장편소설 『피바다』는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소설의 형태적 특성을 살려 높은 사상 예술적 경지를 개척함으로써 주체소설문학의 고전적 본보기로 선군시대를 선도하는 선군혁명문학의 왕성한 창작과 그 성과를 담보하는 고무적 기치로 되고 있다.



Abstract

About The Novel *Pi Bada*

Ko, Chôn-Hun

The novel, *Pi bada*, was originated from the play in the same title written by Kim Il-sông, describing the resistance of Korean in Kando area under the colonization by Japan. It represents a Korean woman who follows her dead husband's track. This story highlighted the motto that a man's destiny should be determined by himself and one has to strive against one's fate. After reading this story, the writer expects readers to realize that only revolution show the way to unravel confusion and quandary. The reason why this novel impresses many readers is that the writer made efforts to provide a detailed and definite situation where the characters acted in, and that the characters' feelings and words placed in that background are closely related to our life.

**Key Word**

The novel *Pi bada*, The play *Pi bada*, description, background, feelings revealed